

2014년 10월 20일 새벽 정리 요약말씀

인간이 깨쳐지는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도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깨쳐지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깨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같이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인간도 그렇습니다. 인간 그대로 살면 똑 같습니다. 어떤 외적인, 상대적인 주관을 받고서 산다면 엄청난 사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금주의 말씀 주제는 ‘그 날에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리라’ 했는데,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냥 보물 감추인 것을 드러내듯이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깨치는 대로, 사람의 머리가 돌아가는 만큼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다보면 계속적으로 그런 환경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다보면 강줄기도 드러나고, 산줄기도 드러납니다. 하루아침에 밀림이 우거진 것이 아니라 살다보니까, 세월이 가다 보니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래가면 보다 이상적인 모습이 드러나리라!

이와 같이 우리들도 살다보면 인간의 두뇌의 깨침에 따라서 모습이 자꾸 드러나고, 숨긴 것이 드러납니다. 인간의 무지를 가지고서는 그 숨은 것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인간이 깨치고, 또 하늘로부터 깨치든지 사람으로 깨치든지 깨쳐야 됩니다.

항상 더 나은 자에게 역사를 시도했을 때 그것을 보고 놀라는 것이지, 똑같은 사람은 똑같은 것을 합니다.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근본적인 작품을 받아서 하면 영원히 볼 때까지도 모순이 안 생깁니다.

모든 사람이 그냥 일반적이고 평면적인 하늘을 찾았는데, 우리는 새로운 각도로 시작해서 하늘의 근원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상황을 땅에 실천하며 여생을 보내게 됐다고, 이 모든 소식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를 발견케 해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을 심어 줘서 마치 시대를 드러내듯이 그들의 모순도 드러내 주고, 그들의 장점도 드러내 주고, 그들이 무지도 드러내 주고, 그들이 유식도 드러내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개발하는 데만 쳐다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만 듣지 말고,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복음의 사명자로서 각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부지런히 뛰고 달리면서 복음을 개발하며 복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감추인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구상한 것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를 우리가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이렇게 구상해서 이 시대의 새로운 역사의 핵심지를 삼으려고 했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았으니까 우리가 책임진 위치는 우리가 책임지고, 도시권을 책임진 자는 도시권을 책임지고, 또 하천문화권의 강 옆에 사는 사람은 강을 개발하면서 해야 됩니다. 다 자기존재를 위한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이런 것을 안 해 났으면 정말로 희망도 재미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재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재미가 큰 것입니다. 금주 말씀에 건달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간식으로 인생 때워서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결국 한계에 부딪힌다고 했습니다. 금주의 말씀을 따라서 감추인 여러분들의 개성도 드러내고, 노력함으로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해 뜨듯이 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하는 것입니다. 왕창 하고 왕창 놓고, 이것은 미친 사람들이 하는 철학입니다.

꾸준히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중 속에서만 채워서는 못 따라 갑니다. 개인 시간을 통해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구상을 하셨는데, 그 숨긴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잔디밭 사이의 통로는 성전이기에 때문에 늘 빗자루로 쓸어야 됩니다. 여기도 내가 물걸레질을 꼭 시켜야 되겠습니까. 내가 물걸레질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야 ‘야, 여기는 성전이구나.’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기에 달려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사람이 와 있어도 그 귀한 것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가 와서 꾸질 거리면 흙이 올라오지만, 평소 날이 좋은날은 쓸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깨끗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깨끗하면 가래를 못 뱉고 침을 못 뱉습니다. 여기 관리가 무지하게 큼니다.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모순이, 감추었던 것이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약한 것이 드러나고. 선생님은 그렇게 인생을 살았기에 저희 선생님 따라서 해야 됩니다. 선생은 그게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인데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성전 통로입니다. 나만 안 다니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다닙니다. 저기를 해 놓고서 저 감나무 밑에 한 달 동안 못 올라 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한 달 동안 아직도 저기를 못 올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올라오기가 힘든 거리구나. 그럴지라도 나는 평생 사용하는 것처럼 해야 될 사람이구나.’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낙타바위도 늘 닦아야 합니다. 여기 통로는 꼭 빗질을 해야 됩니다. 많이 쌓인 다음에 그때서 쓸어 내지 말고, 깨끗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낙타바위 통로의 흙을 좀 보십시오. 통로의 흙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발깁습니다. 절대 저렇게 놔두면 색깔이 안 납니다.

저기에 호피석을 왜 깔았는가 하면, 그냥 시멘콘크리트로 하지 않고 끝내지 않고 호피석을 깔았습니다. 호피석은 알롱달롱 멋있는데 저렇게 두면 황토색을 먹어 버리면 별절합니다. 표가 안 납니다. 물로 쓸고서 바짝 말려놔야 됩니다. 싹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시고, 듣게 해 주시고, 감추인 것을 드러내게 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는 감추인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큰일도 해놓고 작은 일을 못 하느냐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큰일을 해 놓고 작은 일을 못해서 하나님께 갈아치움을 받았습시다. 의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한 위신을 세우고 감이 합당한 것을 믿습시다. 의로 채워 주시고 합당키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공의와 진리와 은혜로 우리를 늘 지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동산을 멋있고 아름답게 가꿔 하나님의 동산임을 모든 사람이 인식하게 만들며, 우리들이 섭리 동산임을 서로 알고 뜻있고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숨은 것들을 드러내며 숨겨졌던 하나님 뜻을 드러내서 일을 하고자 하오니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총을 주사 모두 평강으로 채우심이 크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오니, 전국 온 지구촌 이들이 모두 전도와 관리와 복음으로 부지런히 개발하며, 신령한 성지땅을 개발함이 충만함을 해 주시옵소서.

교역자나 지도자나 모든 자에게 근신하는 가운데 자기 위치를 지키며 목회에 전념을 다하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